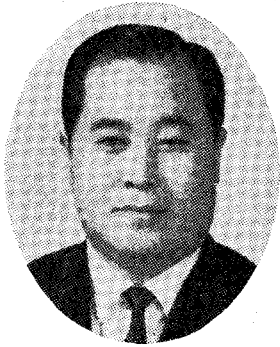


韓國經濟의 成長과

經濟開發計劃



國務總理 企劃調整室 次長

池
宗
傑

1. 高度成長의 이모 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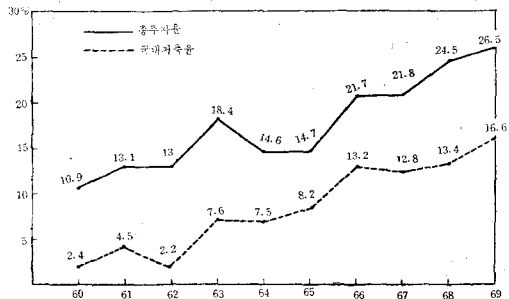
1. 經濟의 安定과 高度成長

한나라 經濟의 適正成長의 內容을 高度成長 安定成長 均衡成長의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高度成長은 構成産業의 成長率이 높은 것을 말하며 安定成長이란 成長過程에서 急激한 「인프레」의 隨伴없이 成長하는 것을 말하며 均衡成長이란 部門經濟間의 均衡的인 成長을 뜻한다. 이러한 高度 安定 均衡이란 理論的인 窮極的 目標이며 現實經濟에 있어서는 이들 세가지 要請이 同時에 達成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政策 또한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第1次 및 第2次經濟開發計劃遂行過程에서 安定된 다른 先進國에 比하여 相當한 物價高를 隨伴한 채 高度成長을 했다거나 一部社會間接資本部分의 施設이 뒤졌다는 것은 産業이 急速한 成長의 結果 由來된 것이다. 지난 1962年以來 國民總生産은 年 10%內외의 高度成長을 記錄하였다. 이와같은 高度成長에는 이 뒷바침 할만한 投資資源이 所要되는 바 資源이 比較的 貧困한 우리나라로서는 近代産業에 必要 不可缺한 重要資源의 相當한 部分을 海外市場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2년에 있어서의 投資率이 13.0%인데 對하여 國內貯蓄率이 2.2%에 不過하였고 1968년에 있어서 投資率이 26.6%인데 對하여 國內貯蓄率이 16.5%였으므로 國內貯蓄으로 充當하지 못한 나머지 部分은 海外貯蓄에 依存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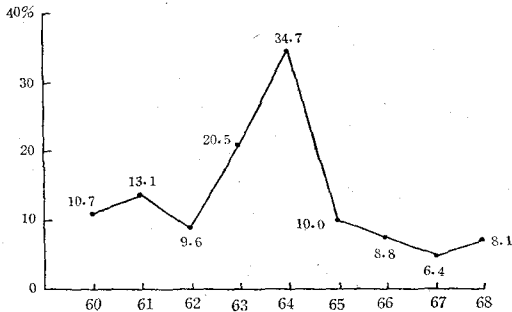
貯蓄率과 投資率 推移



貧困한 資源에도 不拘한 投資의 高率 特히 投資에 있어서의 높은 海外依存度는 不可避한 開發「인프레」를 隨伴해서 1962년부터 1964년까지 年平均 21.6%의 都賣物價의 上昇이 있었다. 그러나 1965년부터 漸次 安定勢를 回復하여 1968년까지 年平均 8.3%의 線에서 都賣物價上昇을 抑制할 수 있었다.

特히 1967年과 1968年의 繼續的인 旱害로 急激한 穀價의 上昇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物價의 安定 趨勢를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은 生産能力의 急激한 増大와 輸入物資의 供給이 圓滑해진데 主要原因이 있어 過去와 같은 政府의 直接的인 物價 統制政策을 쓰지 않아도 間接的인 方法으로 物資의 需要와 供給을 調節하므로써 物價安定을 圖謀할 수 있게 되어 持續的인 安定은 그 展望이 밝다고 하겠다. 더구나 物價란 經濟的인 要因에 依해서만 아니라 政治的 社會的 要因에 依해서도 左右되는 일이 많음을 우리는 體驗해 왔다. 따라서 1965年以來의 安定勢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諸要因의 安定에 依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全國都賣物價 上昇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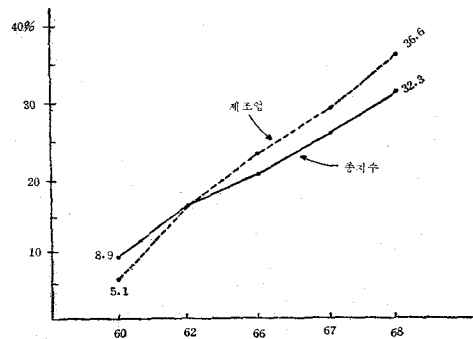
2. 生産과 産業構造

經濟自立과 繁榮을 指向하고 1962년부터 出發한 第1次經濟開發計劃期間中 國民總生産은 年平均 8.3%, 1967년에 8.9%, 1968년에 13.3%의 成長을 示顯하였다. 1969년에 있어서도 지난 3, 4分期까지의 趨勢로 보아 約 15%內외의 가장 높은 成長率을 보여줄것으로 期待한다. 1人當國民總生産에 있어서도 1967年의 143.3弗에서 1968년에는 164.7弗로 約 21弗의 增加를 보여주고있

으며 今年에는 200弗에 接近할 것으로 보인다.

産業生産의 增加趨勢를 보아도 1968년에는 그 前年에 이은 極甚한 旱害 水害等 自然的 沮害要因과 電力輸送等 一部 隘路部門이 産業生産에 많은 制約을 加했음에도 不拘하고 總指數의 增加率은 32.6%로서 1967年의 25.9%를 훨씬 上廻하고 있다. 이를 産業部門別로 볼때 主로 鑛工業의 增加가 主導한 것이며 特히 附加價値面에서 製造業은 1968년에 28.5%의 伸張率을 보여 國民總生産의 成長率 13.3%에 對하여 5.9%나 寄與하였다. 이와같이 製造業의 伸張을 可能케 한 要因은 첫째 輸出 및 國內需要의 伸張 둘째 原料供給의 圓滑 셋째 施設投資의 活潑等을 들 수 있다.

産業生産의 增加率推移<前年對比 增加率>



1960年의 農林水産業 및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部分의 附加價値構成費가 36.9%, 15.7%, 47.4%로서 産業構造上 極히 後進的인 狀態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1968년에 있어서는 各各 29.4%, 24.8%, 45.8%로 鑛工業의 比重이 매우 커져 漸次 近代化에의 過程을 밟고 있다. 이와같은 産業構造의 變動은 各部門의 成長速度의 差異에서 招來되는 바 農林水産業의 比重이 低下되었다고 하여 同部門自體의 絶對的 成長이 없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擴充速度가 急速하므로써 相對的으로 農林水産業의 比重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工業構造內部에 있어서

産業別 構成比의 變動

	1960	1962	1966	1967	1968
農林漁業	36.9	36.6	36.1	32.0	29.4
鑛工業 (製造業)	15.7 (13.6)	16.5 (14.6)	19.7 (18.0)	20.0 (18.3)	24.8
社會間接 資本 및 其他 서비스	47.4	46.9	44.3	48.0	45.8

도 從來에는 纖維 및 食品工業을 中心으로 輕工業部門이 우리나라 工業의 主軸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동안 化學 金屬 機械工業 造船 自動車 工業 등의 發達로 1960年度에 重化學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이 25.9%對 74.1%였던 것이 1968년에는 35.2%對 64.8%로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顯著히 높아졌다.

産業構造의 近代化에 따라 勞動人口의 就業率도 上昇되었으며 雇傭構造도 改善되어 가고 있다. 卽 高度成長의 持續과 輸出 및 投資需要의 急增은 勞動需要를 刺戟하여 1963年度에는 就業率이 91.9%에 不遇했으나 1968年度의 그것은 94.9%에 達하였고 就業者數는 1963년에 比하여 16.5%나 增加했다. 이러한 雇傭增大를 可能케 한 最終需要項目을 消費 投資 및 輸出로 區分하여 그것이 얼마나 雇傭增大에 影響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면 1960년에는 消費의 增大에 依하여 늘어난 就業者數는 全體의 93.9%에 達하였으나 1968년에는 76.8%로 低下된 反面 投資의 增加에 依해 늘어난 就業者數는 1960년의 2.7%에서 1968년에는 15.6%로 그 比重이 커졌으며 輸出 또한 投資의 境遇와 같이 3.4%에서 7.6%로 그 比重이 增大되고 있다. 이와 같이 最終需要의 雇傭誘發效果도 漸漸改善되고 있는 한편 産業別 就業構造도 漸次近代化 되어 1963年만 하여도 農林水産業의 就業者數는 全體의 63.2%이던 것이 1968년에는 52.5%로 低下된 反面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部門은 各各 14.0%와 33.5%의 水準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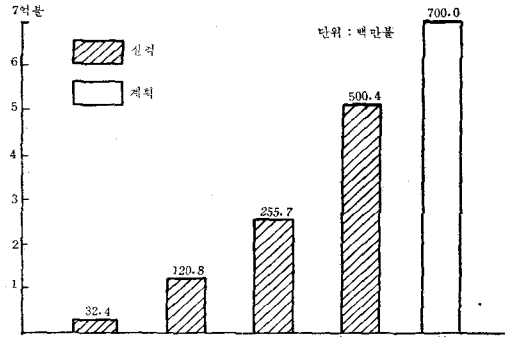
3) 貿易과 國際收支

<貿易量의 擴大>

1962年 以前에는 工場建設에 必要한 資本財나 生活必須品의 輸入은 大部分 外國의 援助資金으로 充當하였다. 그러나 이 援助資金은 해마다 줄어들어 當面한 工業化에의 基盤을 굳히기 爲한

投資活動은 고사하고 既存産業施設의 運營마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輸出增大라는 國家至上 課題를 設定하게 된 것이다.

商品 輸出



우리의 輸出實績은 1960年度에 겨우 3千2百萬 弗에 不遇하던 것이 1968년에 5億 弗의 商品을 輸出하여 年平均 43.8%라는 높은 伸張率을 보였다.

또한 輸出構造도 高度化하여 1960년도에 있어서의 工產品이 全體輸出 商品中에서 차지한 比率이 不遇 18%이던 것이 1968년에는 78%로 늘어나 製造業의 技術이 發展하고 그 施設이 매우 擴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鼓舞의인 輸出伸張에도 下拘하고 輸入의 GNP에 對한 依存度는 1968년에 35.2%에 達하였다. 이는 原資材導入額이 總輸入額의 60% 內外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工業의 發展을 위한 資本財導入의 크기에 緣由하고 있는 것이다. 卽 工業化가 進行되면 原資材 및 資本財의 輸入額은 增加할 수 밖에 없고 食糧을 爲主로 하는 消費財輸入도 旱害로 因하여 不可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開發途上 國家의 國民이 빠지기 쉬운 展示效果의 消費性向의 上昇도 主要한 要因이라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原資材와 機材를 國內에서 自給할 수 없는 작은 나라 例를 들면 「네델란드」등에 있어서의 輸入依存도가 50%以上에 이르기까지 한다. 特히 開發途上에 있으면서 國內의 可用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의 輸入依存도가 1968년에

用途別 輸入 및 構成比

(單位：百萬弗)

區分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消費財 (構成比)	128.8 (23.0%)	73.2 (18.0%)	67.6 (15.0%)	82.2 (11.0%)	99.6 (10.0%)	
原資材 (構成比)	307.8 (55.0%)	257.5 (64.0%)	313.4 (68.0%)	443.5 (62.0%)	567.8 (57.0%)	
資本財 (構成比)	123.7 (22.0%)	73.7 (18.0%)	82.4 (17.0%)	190.7 (27.0%)	328.8 (33.0%)	
合計	560.3	404.4	463.4	716.4	996.2	1,468.2

35.2%였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輸入이 높았기 때문에 그 乘數效果가 높기 이려나서 高度成長을 實現케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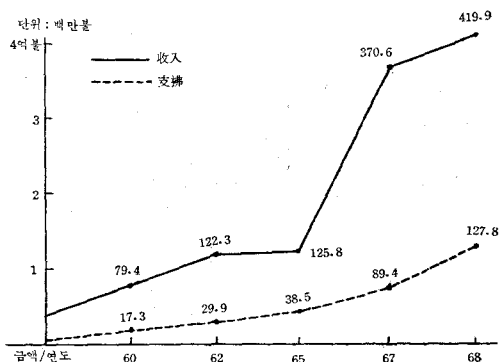
<貿易外去來의 推移>

商品輸出의 增加에 못지 않게 貿易外收入도 注目할만 하였다. 每年 貿易外收支上의 黑字는 貿易으로 나타나는 赤字를 充當하는데 寄與하였다

貿易外收支狀況을 보면 支拂規模는 大體로 抑制된 反面 受取規模가 增大하였는데 1960年과 1968年을 對比하여 보면 7,900萬弗에서 5倍以上 增加한 4億 2千萬弗에 達하였다. 이를 主要項目別로 보면 外國旅行者의 增加에 따른 收入이 1966年부터 急激히 上昇하였고 運輸部門에 있어서는 그간 貿易去來量이 擴大되어 運輸收入 또한 增加하였으며 保險收入에 있어서는 派越技術者들의 用役保險이 黑字를 持續하였다.

支拂에 있어서도 그 規模가 1960년의 1千 7百萬弗에서 1968년에는 1億 2千 7百萬弗로 增加하였는데 이는 對外交易의 增大에 따른 運賃支拂의 增加와 借款元利金の 償還에 따른 投資收益支拂이 增加한데 起因한다.

貿易外收支增加推勢



<移轉支給 및 資本去來>

移轉去來의 推移를 보면 1960년에는 收入이 2億 8千萬弗 支拂이 6百 3십萬弗이던 것이 1968년에는 收入 2億 5千 8百萬弗 支拂이 3千 4百萬弗로서 매년 黑字를 繼續하여왔다.

收入은 大體的으로 每年 約 2億 5千萬弗 程度의 保合된 狀態를 維持하였으나 支出은 1966年까지 大體로 5百萬弗線을 維持해 오다가 1968년에 3千 4百萬弗로 急增하였다. 收入이 保合狀態를 維持해온 것은 無償援助가 每年 減少한 만큼 無換輸入 및 非居住者送金이 相對的으로 增加하였기 때문이고 支拂의 增加는 無換輸出의 增加와 救護를 위한 對外支給이 若干늘어난데 緣由한다.

資本去來는 經濟開發計劃의 遂行과 더불어 活潑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資本去來를 1962年과 1968年을 各各 比較해 보면 1962년에 收入 3千 6십萬弗 支拂 2千 6百 5십萬弗이었으나 1968년에는 收入 5億 5千 5百萬弗, 支拂이 1億弗로 늘어나 매우 活潑하여졌다.

內容別로 보면 長期資本導入의 增加가 開發計劃의 遂行과 더불어 輸出産業用 施設材導入增加에 起因하였고 民間長期 資本去來에 있어서도 直接 또는 合作投資는 勿論 財政借款과 商業借款이 다같이 增加하였다. 우리나라도 꾸준한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아세아」開發銀行 또는 世界銀行에의 出資도 可能하여졌다.

2. 成長의 沮害要因 打開

1962年以來의 經濟開發計劃의 果敢한 遂行은 韓國으로 하여금 後進 90個國中에서 第18位라는 順位까지 끌어 올렸다고 UNCTAD(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는 發表하였다. 1965년에는 後進 99

個國中에서 68位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 間의 工業成長率 輸出伸張率「에너지」消費率等의 놀라운 伸張을 勘案하여 1969년에는 18位까지 끌어올리고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여러나라를 10年以內에 앞지르고 4位 乃至 5位까지 따라붙을 것이라 고 「유엔」關係者들이 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實績과 推進過程을 勘案할 때 長期的 眼目에서 그 改善에 힘써야 할 要因 몇가지가 있다.

〈農工間의 均衡있는 發展〉

現在 우리나라는 農業과 工業 農村과 都市사 이에 價格 賃金 所得 生産과 消費等에 隔差가 있다. 이러한 農工間의 隔差는 우리나라에 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低開發國의 一般의 屬性으로 서 모든 後進國에는 이러한 二重의 構造가 그나 라 工業化를 피롭히고 있는 實情이며 이 二重의 構造를 解消하기 爲해서 또한 工業化政策을 쓰 고 있는 것도 後進國開發의 共通의 現象이라 고 하겠다.

우리나라 農業과 工業사이의 二重의 構造는 대 약 都市所得 100에 對하여 農村은 60程度이고 賃 金에 있어서 都市100에 對하여 農村이 55로 推計 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國民經濟의 均衡 있는 發展이란 見地에서 是正되어야 할 課題이다.

이를 爲해서 農業의 生産性을 높이는 方法 農 產物 特히 米價를 國民의 消費構造改善과 結付 시켜 報償하는 方法 農家의 就業構造를 發展 시켜 農家의 農業外所得을 높이는 方法等 一聯 의 對策과 아울러 農業經營을 現在의 自給을 위 한 經營에서 販賣를 爲한 經營으로 構造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68년부터 實施되고 있는 農漁民所得增大事 業은 1971년까지 474億을 投入하여 蠶業 畜產等 收益性 및 市場性이 좋은 作物을 栽培토록 各種 團地를 全國에 마련하고 1972년부터는 回收된 融 資金을 다시 回轉시켜 農漁民所得을 增대시키도 록 計劃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米價에 있어서 도 1968年產 米穀에 對하여 그前年에 比하여 17% 가 높은 4,200원 精穀(80kg)에 收買하였고 今年 產 米穀에 對해서도 昨年보다 21.5%가 높은 5, 150원에 收買토록 決定하여 年消費者物價上昇率 10%를 훨씬 앞질러 鉅狀價格差를 줄이도록 努力

하고 있다. 이 外에도 耕地整理事業 地下水開發 等의 土地基盤造成事業等이 다 農工間의 均衡 있는 發展을 期하려는 劃期的인 努力이라 하겠 다.

〈企業經營의 合理化〉

우리나라 企業은 1961년까지 「인프레」의 餘德 과 外國援助를 主軸으로 하여 量的擴大를 이룩 하여 왔으며 그 規模 經營技術等 全般的인 企業 體制가 國內市場을 對象으로 한 封鎖體制로 이 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2年부터는 過去의 封 鎖的 體制에서 開放體制로 急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企業도 國際競爭力을 強化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企業 乃至 經營體制를 變革케 한 要因은 첫째 外資導入에 따르는 外貨債務를 製品輸出로서 補 填하여야 할 當爲的 要請과 둘째 우리가 海外市 場에 自由로히 進出할 수 있듯이 外國도 우리國 內市場에 自由로히 進出할 수 있게 되었다는 事 實이다.

現在 우리나라 企業은 自己資本의 不足으로 急 速히 늘어나는 投資를 爲한 財源調達은 銀行借 入 私債 外資에 過度히 依存하는 不健實한 財務 構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業의 主要經 濟指標를 살펴 보면

自己資本構成	33.2%
利子負擔率	17.9%
自己資本收益率	17%
總資本收益率	7%
販賣마진	6.3%
金融費用比率	5.4%

로서 우리나라 企業들이 他人資本에 過大하게 依 存하고 있고 企業의 非公開 原價高로 因한 販賣 마진의 縮少 借入金增加에 따르는 金融費用增大 等 不合理한 點을 엿볼 수 있다.

특히 外資業體의 自己資本 構成費는 위로는 55 %로 부터 아래로는 6%에 이르는 構成費를 보 이고 있으며 總資本利益率에 있어서도 一般製造 業 7%에 比하여 그 반 밖에 안되는 3.8%에 머 물고 있는 狀態이다.

따라서 大膽한 株式의 公開 資本市場의 育成 企業家精神의 涵養等 體質改善을 爲한 果敢한 施

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工業의 地方分散>

工業의 地方分散은 農工間의 二重構造를 解消시키고 農家の 農業外所得을 가져오게 하는 源泉이 될 뿐만 아니라 地方의 特化産業의 發達과 人口의 都市集中 防止等に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다.

日本農業이 第2次 大戰後 近代化된 産業으로 發展된 契機는 農家の 次男 三男 또는 婦女子들이 農業外就業의 機會를 얻어 農業內部的 資本形成을 可能하게 했기 때문이며 이는 곧 工業의 地方分散施策의 結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工場의 都市集中 現象은 輸送이 不便하고 電氣 用水等 施設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地方特化産業이 아직도 發展되어 있지 못한데도 그 原因이 있다.

오늘날 高速道路의 建設로서 輸送時間을 短縮코자 하는 것이나 地方特化産業에 重點을 둔 農漁民 所得増大事業이나 主要 地方都市 또는 港口에 臨한 地域에 工業團地를 造成하고 있는 事業들이 다 工場의 地方分散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消費性向의 抑制과 貯蓄의 増大>

1967년에 있어서의 消費率 88.8 限界 消費性向 0.915였고 1968년에는 消費率 86.6 限界消費性向 0.854로서 多少 나아지는 趨勢를 보여 주고 있으나 國際收支의 改善과 國內貯蓄에 依한 投資財源의 調達이라는 前提下에 自立化를 서두르고 있음을 勘案할 때 消費率 86.6 限界消費性向 0.854는 매우 높은 消費性向이라고 하겠다.

投資에 있어서의 海外依存度도 1968년에 33.9%에 이르는 實情을 勘案할때 政府 및 民間消費의 大幅抑制과 不要不及의 輸入需要 또한 果敢하게 抑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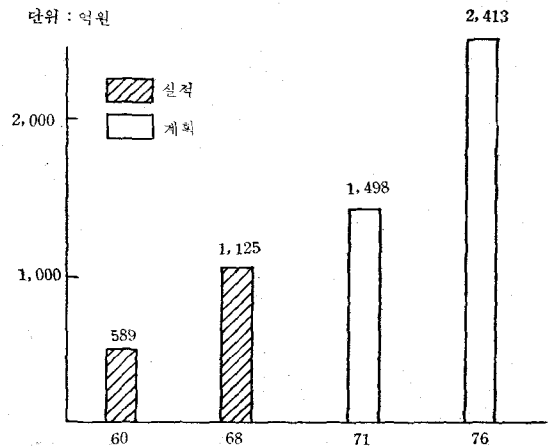
1968년에 있어서의 民間消費支出의 構成을 살펴보면 被服費가 對 前年比 18.6% 雜費(遊興, 娛樂等)가 15.7% 高級家具等을 包含한 住居費가 14% 上昇하는 등 奢侈性 消費에 家計支出이 많음을 볼 때 非生産的 消費財에 對한 重課, 輸入需要의 制限 貯蓄의 勸奨等 果敢한 施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經濟開發計劃의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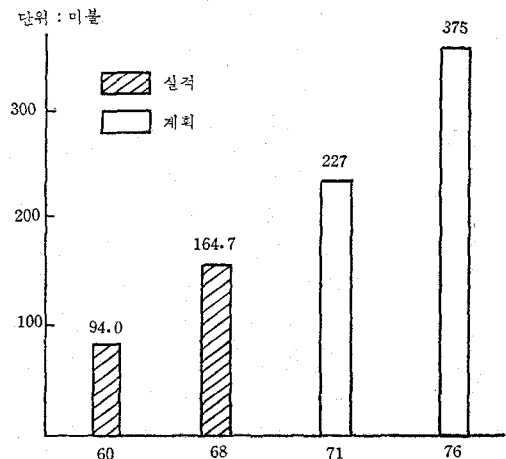
우리나라 經濟는 1,2次 5個年計劃을 通하여 工業化로 向한 自立經濟의 基礎를 굳혔으며 1972年부터 시작될 第3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는 經濟開發의 主軸을 輸出의 劃期的인 増大와 보다 均衡된 農工間의 發展을 促進하여 確固한 自立體制의 構築과 國民生活의 向上을 期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基本目標의 達成을 위한 部門別 目標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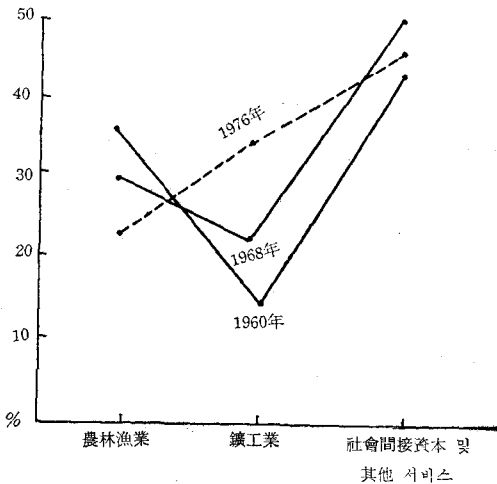


첫째 國民總生産은 計劃期間中 年平均 9%로 成長하여 1976년에는 約 2兆 4,000億원의 水準에 達하게 됨으로서 1968年 現在の 國民總生産에 比하여 二倍以上 伸張하게 될 것이며 1人當 國民總生産도 1968年の 164.7弗에서 1976년에는 375弗 水準에 이르게 될 것이다.

둘째 商品輸出은 1976년에 36億弗에 達하게 되며 貿易外收入 5億弗을 합치면 41億弗에 達하게 될 것이다.

또 이와같이 劃期的으로 增大하는 輸出은 經濟成長의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이다.

産業 構造



셋째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食糧의 自給自足を 期하게 되고 農漁民의 所得도 增加될 것이다. 水利可能한 地域은 完全水利化될 것이며 耕地整理 事業도 1970年代 後半에는 大體로 끝나 農業經營의 機械化와 經營規模의 零細性を 克服하는 協業農의 發達을 期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工業部門은 計劃期間中에 年平均 15%의 成長을 하게 되므로서 經濟成長을 主導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各生産部門間에 聯關度가 높아져 經濟成長의 波及效果가 極大化할 것이며 特히 機械 및 化學製品의 生産에 注力하여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높아지므로서 工業化가 成就될

것이다.

다섯째 社會間接資本部門에 있어서는 鐵道施設 高速道路 港灣施設 및 「콘테이너 시스템」의 均衡的인 擴大를 通해서 貨物流通構造가 劃期的으로 改善될 것이다. 한편 通信施設의 擴充改良과 多目的 댐 建設 및 用水開發 事業等에 있어서 많은 成果를 거둘 것이다.

여섯째 大都市 人口集中을 分散하고 各地域에 알맞는 團地의 造成을 通하여 均衡있는 地域發展을 期하고 社會環境의 改善을 期하게 될 것이다.

第3次 5個年計劃指針案에서 밝혀진 이와같은 部門別 目標達成이란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니다.

安定과 均衡의 犧牲이 없는 成長率이란 通常年 6%乃至 7%의 中位成長이라고 하겠으나 歷史的 中興의 大命題 앞에서 9%程度의 年間成長을 計劃한 것은 그대도 앞서는 意慾을 牽制하는 適正線이라고 하겠다. 特히 年 9% 成長率을 支辨할 投資財源의 調達問題에 있어서 計劃期間中 限界貯蓄性向 31%를 堅持코져 하는바 國民個個人의 生活態度에 劃期的인 革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第3次計劃의 力點은 輸出産業의 育成에 있는바 輸出로서 成長經濟의 原動力을 삼아야 한다는 것은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에게 不可避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76년에 있어서 國民總生産이 約 90億弗에 이를 것인바 이의約 40%에 該當하는 36億弗의 輸出을 成功시키려면 무엇보다도 輸出産業의 生産基盤擴充問題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 質的인 改善을 期할 수 있는 技術의 劃期的인 提高와 모든 企業人의 祖國近代化의 役軍으로서의 姿勢確立이 要請되는 것이다.